

제 2호 · 2015년 12월 9일

미래 전략 연구 본부 | 국제 물류 연구 실
총 괄 | 이성우 실장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의 투자유치 여건

- 러시아는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에너지 자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러시아는 유럽으로 편중된 에너지 자원 수출 구조의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수출 노선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게 됨
 -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국 제조업 활성화 및 '신동방 정책(New East Asia Policy)' 등 극동러시아 개발을 통해 러시아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러시아의 의지는 2015년 9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등을 통해 나타남
- 이에 따라 극동러시아로 전 세계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푸틴 집권 3기 이후 러시아의 극동러시아 개발 의지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음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집권 1기, 2기¹⁾ 때에도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 및 러시아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이와 같은 전략적인 투자유치 제도는 미비했음
- 2012년 푸틴 3기가 시작된 이후 극동개발부가 신설되었으며, 2014년 12월 대통령 승인에 따라 극동러시아 내 9개의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이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
 - 또한 2014년 12월 연례 의회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유항' 지정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하 자유항)' 법안이 통과됨
- 러시아는 극동러시아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2015년 9월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극동지역 투자를 또 한번 강조함
 - 동방경제포럼은 2012년 9월 APEC 회의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대규모 국제 포럼으로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음
 - 3일간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약 1.3조 루블 규모의 80여개 투자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됨
 - 한중일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동방경제포럼은 사회간접자본, 호텔, 제조시설, 수산물가공센터 등 다방면의 투자유치를 희망

1) 푸틴 1기 : 2000년 ~ 2004년, 푸틴 2기 : 2004년 ~ 2008년.



선도개발구역 현황 및 주요 혜택

- 현재 선정된 선도개발구역은 총 9개며 농업, 광물업, 관광, 물류, 식품 등으로 특화분야가 나누어짐
- 선도개발구역은 연해주 '나제진스카야', '미하일롭스카야' 하바롭스크 변경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 아무르주 '프리아무르스카야', '벨로고르스크', 캄차트카 변경 '캄차트카', 추코트카 변경 '베링굽스키', 사하공화국 '칸갈라시'임
- 현재까지 선도개발구역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은 총 52개 업체로 11월 19일 'Inkom-DV'가 입주 신청 기업 중 처음으로 부지 공사를 시작함
- 'Inkom-DV'는 연해주 나제진스카야에 85억 루블을 투자하여 '연해주 남부터미널 물류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연간 예상 물동량은 컨테이너 90만 TEU, 일반화물 143만 톤임²⁾
- 선도개발구역에 투자될 자본은 민간자본 약 2,570억 루블, 정부예산 약 190억 루블임

선도개발구역별 특징

단위: 10억 루블

연방주체	선도개발구역	특화분야	입주 신청 기업	투자액	
				민간자본	정부예산
하바롭스크주	하바롭스크	산업물류 및 식품산업	8	28.52	1.8
	콤소몰스크	산업	6	15.23	1.2
연해주	나제진스카야	물류 및 식품산업, 건축자재 생산	3	6.73	3.2
	미하일롭스키	산업	2	39.03	4.44
아무르주	프리아무르스카야	산업물류	3	128.9	0
	벨로고르스크	농업	3	1.45	0.086
캄차트카주	캄차트카	산업물류, 농업, 관광	13	28.1	8.33
추코트카주	벨린굽스키	광업	1	8	0
사하공화국	칸갈라시	산업	13	1.11	0.2

자료: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개요', 2015, pp.3-25에 의거, KMI 재구성

2) Морские Вести России, <http://www.morvesti.ru/detail.php?ID=37638> (검색일: 2015년 12월 3일)



- 선도개발구역에서 제시하는 세제혜택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경제특구조건을 비교·분석하여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극동러시아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갖추
 - 현재 러시아와 선도개발구역의 이윤세를 비교하면 선도개발구역이 3.5% 낮음
 - 또한 전력사용료 및 임금도 기존의 러시아 산업단지에 비해 낮게 책정함
 - 특히 운송비 및 건축허가 승인기간 등은 선도개발구역이 타 지역에 비해 낮거나 짧음
 - 이는 기존의 러시아 투자 시 해외 투자자들이 겪는 장애요인 중 높은 운송비 및 복잡하고 절차가 긴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법인세의 경우 최대 5년간 연방세 0%, 이익 발생 후 최장 5년간 지방세 0%이며, 재산세는 지방정부마다 상이하나 초기 5년간 0~0.5%임
 - 토지세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되며, 사회보장세는 10년간 7.6%임³⁾
- 극동러시아 투자유치 시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낮은 인프라 수준의 개선을 위해 선도개발구역 입주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지원하며 도로, 가스, 전력, 상하수도 등은 연방정부 50%, 지방정부 50%씩 비용을 분담함

선도개발구역별 및 타국가 경제특구 조건비교

구분	선도개발구역	러시아	한국	중국	싱가폴	미국	캐나다	일본
이윤세 (전체이윤의 %)	10	13.5	10	15	17	33	23.5	26.4
운송비 (1\$/TEU)	440	1,800	700	550	440	1,320	1,660	970
전력비용 (전력 1KW/h당 1센트)	6.9	11.7	7.3	7.4	13.6	6.9	7.4	17.9
임금 (임금지급총액의 %)	7.7	14	8.8	26.7	16	7.7	8.7	25.6
건축허가 승인(기간)	26	244	29	67	26	27	167	193
전력망연결(기간)	28	254	28	41	36	68	142	105

자료: 극동개발부, <http://minvostokrazvitia.ru> (검색일: 2015년 1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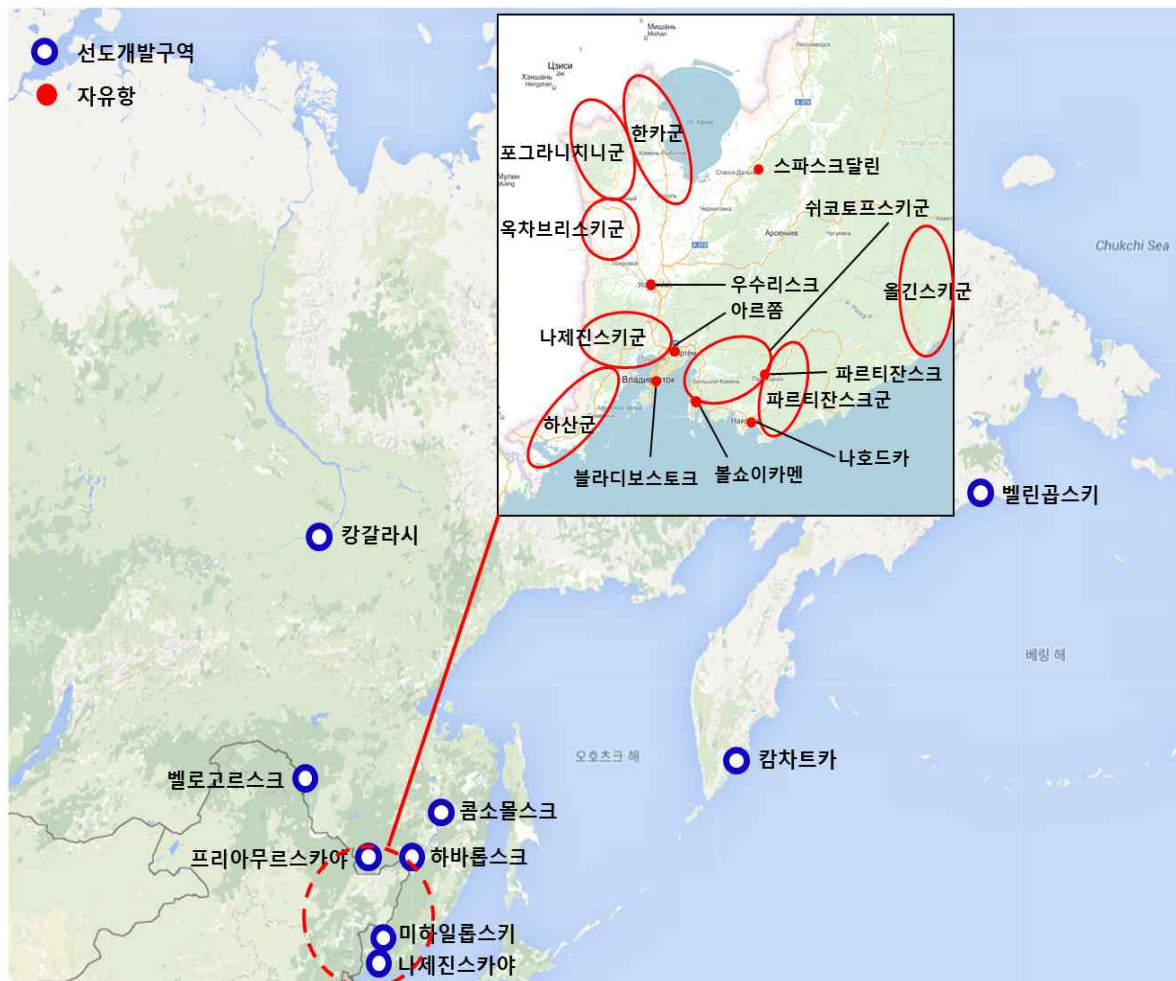
3) 극동개발부, <http://minvostokrazvitia.ru> (검색일: 2015년 12월 3일)



자유항 현황 및 주요 혜택

- 자유항으로 연해주 15개 지역⁴⁾과 국제회랑인 프리모리예 1, 2(Primorie-1, 2)가 지정됨
- 자유항은 기업 활동에 대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특혜가 주어지며, 군사지역, 특별 경제구역, 선도개발구역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됨⁵⁾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 위치



자료: 극동개발부, <http://minvostokrazvitiya.ru> (검색일: 2015년 12월 3일), KMI 재구성

4) 15개 자유항 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시(Vladivostok), 아르좁시(Artem), 볼쇼이카멘시(Bolshoy Kamen), 나호드카시(Nakhodka), 파르티잔스크시(Partizansk), 우수리스크시(Ussuriysk), 스파스크달린시(Spaask-Dalny), 나제진스키군(Nadezhdinsky), 쉬코토프스키군(Shkotovsky), 옥차브리스키군(Oktyabrsky), 파르티잔스크군(Partizansky), 포그라니치니군(Pogranishny), 하산군(Khansansky), 한카군(khankaysky), 올긴스키군(Olginsky)임.

5) 연방법 No. 212-FZ.



- 자유항 내에서는 러시아 연방법이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자유항 내 허용되는 경제활동 유형은 자유항 감독이사회가 결정함
- 자유항 입주기업 선정 기준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정하며, 정부령⁶⁾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자유항 내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이행 계획 보유자 또는 기업활동약정서 신청 내용상의 활동내용에 신청일 전까지 수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기업
 - 자유항 입부기록 목록 등재 시부터 3년 내 자본금 500만 루블 투자기업
- 자유항 제도에는 교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통관개선 및 8일간의 무비자 제도가 포함됨
 - 통관의 경우 24시간 국경 통관소가 운영되며 사전통보제도, 단일창구제도 도입 등으로 통관업무를 개선함
 - 또한 러시아 연방법 및 출입국관리법⁷⁾에 의해 자유항 내 소재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인 8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비자 절차가 간소화됨
- 자유항 연방법을 살펴보면 의료 및 교육 활동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히 의료 활동의 경우 해외 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의료 활동 허가 및 라이선스를 발급 받으면 자유항 내에서 의료 활동이 가능함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차이점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은 극동러시아 개발 및 발전,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전략적 제도임
 - 이 두 제도는 자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우호적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 비슷한 부분이 많으나 크게 제도의 설립 목적 및 인프라 재원 조달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음
- 선도개발구역의 설립목적은 극동러시아 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극동러시아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자유항은 연해주의 지리적 이점을 통해 주변국과의 교역 및 자국 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6) 정부령 No. 1123

7) 연방법 No. 213-FZ, 출입국관리법 N 114-FZ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주요특징 비교

구분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1. 법률 근거		연방법 473-FZ(2014.12.29.)	연방법 212-FZ(2015.7.13.)
2. 목적		극동지역 투자 환경 조성, 사회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비즈니스 활동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위한 구역 조성	러 동부 해양 관문이라는 연해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아태지역과의 교역 강화 및 산업 발전촉진
3. 인프라 자원 조달		연방 예산, 극동 주정부 예산, 지방 예산 및 기타 자원	PPP(민간자본), 연방예산, 연해주 예산, 지방 정부 예산
4. 입주절차		관리회사와 약정 체결	좌동
5. 세제	a. 연방 소득세 (2%)	이윤발생시부터 5년간 면제	좌동
	b. 지방 소득세 (18%)	이윤발생시부터 5년간 5% 이내, 5 ~ 10년간은 10% 이상	
	c. 사회 보장세 (28%)	7.6%	
	d. 부가 가치세 환급	관리회사 보증으로 입주자 신고 기준 신속 환급 절차 마련	
6. 지방정부 조사 완화		정기 조사시 극동개발부와 사전합의 조사기간 단축(15일, 중기업 10시간)	좌동
7. 외국인 근로자고용 절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유치 허가 면제	-
		초청장 및 고용허가서 발급 쿼터 예외	
8. 비자절차 간소화		-	8일기한 체류 비자
9. 국경통제		-	- 국경통제 서류 절차 single window 적용 - 도착전 사전통보에 근거한 통과 - 전자 통관
10. 무관세통관	입주기업 입주지역에 설정		입주지역, 국제항만, 국제공항, 연결로, 연결도로 및 철도인 접지역(물류섹션)에 설정
	관세동맹 경제특구 협정에 따름		면세조건 및 절차를 상세 규정(통과, 가공수출,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수입에 신고자 신고기준으로 통관절차 적용)
			샘플 제품 유통 허용, 고가물품 보관, 전시, 판매 구역 설치
11. 기간		70년(연장가능)	좌동
12. 외국의료, 교육기관 진출		허용	좌동

자료 :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개요', 2015, KMI 재구성



- 인프라 자원 조달에 있어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의 차이점은 민간자본의 존재 여부임
 - 선도개발구역은 인프라 자원 조달을 연방정부, 극동 주정부, 지방 예산 등을 통해 조달하며, 자유항은 연방정부, 연해주정부 예산 외에 민간자본의 투입이 가능함
- 러시아는 자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극동러시아 개발을 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계점도 있음
 - 연해주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지역은 아직까지 인프라 시설이 크게 부족함
 - 그나마 인프라 등 제반시설이 구축된 연해주의 나제진스카야 및 블라디보스토크시의 경우 항만배후단지 및 도시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어 개발에 제약이 있음⁸⁾
 - 또한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운영을 위해 최소 6만 명 이상의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극동러시아는 러시아 내 인구감소율 및 이주율이 가장 높아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됨⁹⁾
 - 극동러시아 인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0.4% ~ 0.2%¹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¹¹⁾
- 과거에도 러시아에는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과 같은 특별경제구역¹²⁾ 및 사회·경제 개발프로그램¹³⁾이 존재하였음
 -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주변국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하며, 러시아 정부가 극동러시아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에는 다소 제도상의 한계점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미흡한 제도를 보완·개선할 것으로 예상됨

김은미 연구원

051-797-4778, usea1004@kmi.re.kr

8) The Siberian Times, <http://siberiantimes.com>(검색일 : 2015년 12월 1일)

9) Global window, www.globalwindow.org(검색일 : 2015년 12월 1일)

10) 동년 러시아 평균 인구변화율은 0.1%~0.2%로 플러스 성장함

11) 러시아 통계청, www.gks.ru(검색일 : 2015년 12월 2일)

12) 연방법 116-FZ.

13)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Ф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2018'(Федераль Ц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18 года), '연해주 수산업단지 발전 2013-2017'(Развитие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 2013-2017 годы), '쿠릴열도(사할린주) 사회·경제 발전 2007-2015'(Федераль Ц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07-2015)



러시아, 10월 - 11월 철도수송량 증가

- 2015년 10월 러시아 전체 철도화물 수송량은 1,985억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상승해 최근 15년 사이의 최고 증가율을 기록함
 - 10월의 러시아 철도화물 하역량(처리량)은 1억 70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0.5% 감소함
 - 품목별 운송량으로는 석탄(3.2%), 목재(3.3%), 건축자재(9.7%), 화학·유기질비료(10.3%)가 증가하였으며, 석유(-8.5%), 곡물(8.7%), 광석(-3.1%), 금속(-1.7%)이 감소함¹⁴⁾
- 그중 10월 석탄 운송량은 2,930만 톤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2015년 1월~10월 사이의 석탄 운송량은 2억 6,350만 톤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함
 - 10월 러시아 석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약 6% 높으며¹⁵⁾, 수출량 또한 약 6% 증가하여 내수시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석탄 운송률은 한국(5배), 중국(7%), 핀란드(14%), EU(15%)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함
- 10월의 석유 운송량은 1,930만 톤으로 기존의 석유관이 하바롭스크 석유정제소로 전환된 점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으며, 2020년 새로운 석유관 도입 예정으로 인하여 향후 운송량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약 0.5% 높으며, 수출량은 약 8% 증가하여 내수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한 현상을 보임
 - 석유 운송률은 중국(1.5배), 핀란드(1.5배), 벨라루시(3배)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러시아 석유 수출 관세는 11월 기준 약 6% 증가함
- 10월의 건축자재 운송량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1,360만 톤을 기록한 반면, 2015년 1월~10월 사이의 건축자재 운송량은 1억 1,060만 톤, 시멘트 운송량은 2,53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4%, 11.2% 감소함
 - 건축자재 운송률은 노보시비르스크(1.5배), 로스토프(1.5배), 하바롭스크(1.8배), 노브고로드(2배), 크라스노다르(11%), 모스크바(13%) 지역에서 증가함
 - 러시아 고속도로에서의 건축자재 운송량은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최대 12톤까지 중량 초과가 허용됨
- 10월의 광석 생산량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6,06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수출량은 약 27% 감소하여 내수시장에서 약 4% 상승세를 보임

14) 2015 러시아 철도시장 동향, <http://portnews.ru/digest/16576/> (검색일: 2015년 12월 1일)

15) 러시아통계청,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 (검색일: 2015년 12월 1일)



- 주로 슬로바키아(-2배), 폴란드(-2배), 루마니아(-2.8배), 우크라이나(-1/4배) 국가에서의 수출이 감소함
- 반면, 러시아와 같은 BRICS 국가인 인도의 산업자원부는 철광석 수출 회복과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수출 관세를 약 10%로 낮추거나 폐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¹⁶⁾, 인도의 수출 관세 폐지 후 철광석 국제가격 하락이 러시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10월 금속 운송량은 598만 톤으로 세계 경제 불황 여파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으며, 2015년 1월~10월 사이의 금속 운송량은 5,98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함
- 10월간 주요 수입 감소국으로는 스페인(중단), 터키(-10%), 벨기에(-35%)가 있으며, 멕시코(1.5배)와 모로코(전년 통계 없음) 국가로의 수입은 증가함¹⁷⁾
- 최근 러시아와 터키의 경제제재에 따른 건설산업 위기 여파로¹⁸⁾ 금속 및 철강 제품의 출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10월의 곡물 운송량은 210만 톤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하였으며, 풍년과 저가경쟁의 여파로 러시아 자국 내 곡물 출하량은 9% 증가, 수출은 22% 감소함
- 이집트(1.5배), 예멘(3배), 이스라엘(4배) 국가로의 곡물 공급 증가와 더불어 벨기에(4배), 사우디아라비아(20%), 나이지리아(전년 통계 없음) 국가로의 작물 공급이 증대됨
- 러시아의 주요 곡물로는 콩, 아마, 옥수수 등이 있으며, 2015년 11월 현재까지 약 1억 100만 톤의 곡물이 수확됨
- 10월의 화학·유기질비료 운송량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43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유기질비료의 운송량은 지난 10년간의 동기대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함
- 2015년 1월~10월 사이의 비료제품 운송량은 4,24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함
- 비료제품의 10월 수출량은 약 2% 증가하여 내수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약 11% 증가함
- 러시아로부터 브라질(1.2배), 리투아니아(1.3배), 우크라이나(1.5배), UAE(전년 통계 없음) 국가 간의 화학·유기질비료 운송률이 증가함

자료 : <http://www.portnews.ru> 2015.12.01., <http://www.rzd.ru> 홈페이지 참고 (검색일: 2015년 12월 1일)

황윤희 연구원

051-797-4786, hwangyh@kmi.re.kr

16) 2015 러시아 철도시장 동향, <http://portnews.ru/digest/16576/> (검색일: 2015년 12월 1일)

17) 러시아통계청,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 (검색일: 2015년 12월 1일)

18) Первый канал, <http://www.1tv.ru/news/world/297611> (검색일: 2015년 12월 5일)

러시아 최대 복합물류단지 건립

- 러시아 최대 스비야즈스크 복합물류단지¹⁹⁾(이하 '복합물류단지')가 타타르스탄 공화국 (Republic of Tatarstan), 카잔(Kazan)시에 건립됨
 - '복합물류단지'는 러시아 연방 '2006-2010 러시아 교통 시스템 현대화 프로그램²⁰⁾', '2010-2015 러시아 교통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²¹⁾' 하위 프로젝트로 PSO-KAZAN 사가 주도하여 건설하였음
 - 이번 '복합물류단지'는 총 면적 224 ha로 러시아 연방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힘
- 이번 '복합물류단지'는 러시아 내에서 철도, 도로를 이용한 '동-서' 운송루트 외에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자연·지리적 요소를 활용하여 발트해-볼가강-카자흐스탄 국경까지 '남-북'으로도 네트워크가 연결됨
 - 복합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철도, 도로, 내륙수운이 연결되며, 컨테이너 야적장, 화물 보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됨

타타르스탄 공화국 위치 및 '복합물류단지' 조감도



자료: Выставоч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www.tat-expo.ru, Republic of Tatarstan, <http://1997-2011.tatarstan.ru>, Pro-Kazan, <http://pso-kazan.ru> (검색일: 2015년 12월 4일), KMI 재구성

자료 : <http://portnews.ru> 2015.12.3., <http://pso-kazan.ru> 홈페이지 참고 (검색일: 2015년 12월 4일)

김은미 연구원

051-797-4778, usea1004@kmi.re.kr

19) Связьский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мультимодальны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20) Модернизац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 на 2006-2010 годы

21)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 на 2010-2015 годы



2025년 연해주와 중국 간 교역량 1억 7천만 톤까지 증가 예상

- 12월 중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의 북동지역과 극동러시아 항만을 연결하는 국제수송회랑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개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
 - 연해주와 헤이룽장성 간 교역량은 프리모리예-1 국제수송회랑을 통해 2025년까지 연간 약 8천만 톤까지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²²⁾
 - 연해주와 지린성 및 중국 내륙지역의 물동량은 프리모리예-2 국제수송회랑을 통해 자루비노항으로 수송되며, 10년 후 약 연간 9천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위의 예상대로 연해주와 중국 간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러시아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임
 - 러시아는 프리모리예-1, 2 국제수송회랑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지역으로 중국 헤이룽장성, 지린성, 몽골을 두고 있으며,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동북아와 동남아시아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
- 프리모리예-1 국제수송회랑은 헤이룽장성 쉰이펀허시에서 연해주 중-러 국경지역에 있는 그로데코보역까지 연결된 다음 극동 항만까지 이어지는 라인임
 - 이 교통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과하여 중국에서 아태지역으로 가는 가장 최단거리임
 - 교통로에 있는 도로들의 현대화 및 재건설이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 13억 루블(220억 원)²³⁾ 정도의 지역예산이 편성됨
- 프리모리예-2 국제수송회랑은 연해주 남서지역에 있는 포시에트항, 자루비노항, 슬라반카항과 중국의 북동지역에서 남동지역 및 아태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장 짧은 루트임
 - 이 프로젝트에는 '수마(Summa)' 그룹과 그 외 중국기업들이 참여함
- 이 국제교통회랑 프리모리예-1, 2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 약 2억 루블(33억 8,000만 원)²⁴⁾ 정도의 투자가 필요함

자료 : <http://tass.ru/ekonomika/2462090> 2015.11.23. (검색일: 2015년 12월 6일)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

22) 이 물동량은 곡물, 컨테이너 등 모든 화물을 포함한 물동량임

23) 2015년 12월 8일 환율기준, 1RUB = 16.92원, 하나은행, www.hanabank.com (검색일: 2015년 12월 8일)

24) 2015년 12월 8일 환율기준, 1RUB = 16.92원, 하나은행, www.hanabank.com (검색일: 2015년 12월 8일)